



#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金 鴻 來

編輯人：金 泰 錫

(住所) : 서울特別市 銅雀區 大方洞 358-1番地 (우) 156-808, (電話) : 02-823-1091, 810-6792 (FAX) : 02-823-1092,

E-Mail : airfa04@hanmir.com  
HOMEPAGE : www.afa.ac.kr

## 新年辭

친애하는 동창회회원 여러분!  
壬午年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癸未年을 맞이했습니다. 會員여  
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健康과  
幸福이 충만한길 衷心으로 祈願  
합니다.

아울러 동창회의 발전과 會員  
상호간의 親善도모를 위해 總동  
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同參해  
주시는 會員 여러분들께 珍貴한  
감사를 드립니다.

本人이 空士總同窓會 會長에  
취임한 지도 벌써 6개월의 시간  
이 흘렀습니다. 本人은 동창회에  
취임하면서 會員간의 친선교류와  
會員들의 권익보호 활동을 통하  
여 總동창회의 활성화에 進力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 동  
안 總동창회에서는 각 기생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발한 활동을  
總동창회와 연계시키고 靑壯한  
사함을 전 기생에 普及시키는 일  
에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또, 海外에 거주하는 동창회 운  
영 실태를 파악하였고, 특히 활발  
한 활동을 하고 있는 LA 공사동  
창회와는 직접적인 친선 교류체  
제를 구축함으로써 總동창회 會  
員 관리에 나름대로 큰 進展을 이  
루었습니다. 아시다시피 總동창회  
는 먼 훗날을 위해서 基金 확보와  
既助成된 基金관리에 최선의 노  
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  
해 지난 해에도 會員들의 淸生회  
비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  
과 많은 會員들이 참여하게 되었  
고, 완벽한 基金관리 체제를 마련  
하여 우리 동창회 基金이 점점 확



대 적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창회회원 여러분!  
공사가 문을 연 지 50년 이상  
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總  
동창회가 지금까지 쌓아온 연륜  
에 맞게 발전된 모습을 이미 갖  
추었어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하  
고 그 운영실태는 아직도 초보  
적 단계에 있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  
분입니다. 아마 모든 會員들은  
總동창회가 하루빨리 연륜에 걸  
맞는 운영 軌道에 進입하기를  
기대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會員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總동창회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總동창회의 現역회  
원들은 최일선 영공방위 임무에  
전념하고 있고 군을 떠난 예비  
역 會員들 위주로 운영되고 있  
는 현실입니다. 우리 總동창회는  
평소에도 會員상호간의 「친선도  
모」를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내  
세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급년 새해에는 이 「친선도모」를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동창회  
발전이 기여하고자 합니다.

첫째, 總동창회는 現역으로 소

임을 다하고 있는 후배 회원들  
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하겠  
습니다. 선배 會員들이 과거 공  
군생활의 풍부한 경험을 후배들  
에게 전파하고, 후배들의 임무  
에 관심을 가져주는 일은 現역,  
예비역 會員간의 끈끈한 친선이  
요, 英公방위의 보다 큰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둘째, 總동창회는 예비역 會員  
들의 친목을 강화하는 일에 전념  
할 것이며, 특히 會員들 중에 어  
려움이 많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會員들에게 고통을 덜어 주는 일  
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사관학교 졸업자 現역과  
예비역을 연결하는 가교의 끈을  
더욱 튼튼히 해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예비역들의 열렬한 마음의  
고향은 언제나 공군사관학교입니  
다. 현재 방침은, 現역은 기생회  
장을 통한 동창회 회비납부만의  
활동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여 기생회 임원들만이라도  
동창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방부 지침을 변경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조할 계획입니다. 이러  
게 함으로써 공사 졸업자 現역이  
함께하는 새로운 모임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總동창회가 會員 개개인에게  
골고루 베퉴 수 있는 혜택이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  
니다. 다만, 공사를 졸업했다는  
공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상호간  
의 친선을 도모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동창회의 커다란  
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새해 癸  
未年을 맞아 선배는 후배를 이  
끌어주고 후배는 선배를 밀어  
주고 분방은 든독한 친선의 장  
이 크게 확대되어 나갈 때 필승

## 차 례

### 총동창회 소식(2~5면)

- 10차년도 회장단 출범
- 총이사회 개최
- 미, LA지역 공사총동창회 소식
- 각 기생회 동경

### 모교소식(6~7면)

- 공군, '02년도 후반기 공군 지휘관 회의 개최
- 대한민국 최초여전투기조종사 탄생

### 회비 및 찬조금(8~9면)

-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 회원기고란(11~13면)

- 總동창회를 말한다(김태석)
- LA에서 온 편지(김진화)

### 모교소식(14~15면)

- 생도 필수 소양교육관 개관
- 첫 여성 전대장 생도 탄생

의 공군, 자랑스런 공군사관학  
교가 되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癸未年 새해에 동창  
회원 여러분의 健康과 平安을 빌  
며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  
길 衷心으로 祝願하는 바입니다.

2003년 元日

공군사관학교 總동창회  
회장 金 鴻 來



공군사관학교 總동창회

# 空士總同窓會 消息

## 10次年度 會長團 出帆

공사총동창회가 구성되어 새롭게 태어난 지도 10차년도도를 맞이하게 되었다. 공사총동창회 운영은 매기생별로 1년간씩 담당 운영하게 된 바, 이번 동창회 운영 담당은 10기사관 동문들이 맡게 된 영광을 안았다.

지난 1년간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준 9기 사관들의 업적을 이어받아 10기 사관 동문도 모교와 모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전 동창회원들의 상부상조 정신을 더욱 드높여 나가겠다는 기치 아래 김홍래 회장을 비롯한 7명의 회장단으로 구성 당찬 출범을 하게 되었다.

### ● 회장단 명단

- 회 장 : 김홍래
- 부 회 장 : 송중호, 이달화, 한정복
- 감 사 : 이현재, 임승욱
- 사무총장 : 김태석
- 이 사 : 10기 사관 전원

### ● 기생별 이사 명단

(2002. 7. 1. ~ 12. 31.)

기 수	회 장	총 무	기 수	회 장	총 무
1	최규순	최규순	16	박성국	김종환
2	고영근	김여영	17	유현준	차옥환
3	김중훈	정규혁	18	정원태	최석삼
4	박병선	임병열	19	김명립	윤정채
5	최홍선	이병직	20	김성두	이지훈
6	조영철	강영수	21	이근재	
7	오화수	박만영	22	강수준	
8	김삼록	백상희	23	윤차연	장찬연
9	최일영	이기봉	24	정인성	유상양
10	이달화	이현재	25	강진석	전성희
11	임지호	김옥주	26	김병락	박화영
12	김익식	김영웅	27	한진석	고용하
13	조건환	윤재명	28	윤 우	김영철
14	이역수	석영우	29	양철환	염영경
15	임익준	김성덕	30	김주혁	박성준

## 10次年度 理事會 開催

회칙 제5장 17조에 의거 10차년도 이사회가 7월 26일 용산에 있는 국방회관에서 개최되었다. 각 기생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는 10차년도 사업계획, 운영자금 조성계획 등을 심의 의결하였다.

### ● 심의안건

#### 1. 10차년도 사업계획(안)

- 정기총회 : 1회
- 총이사회 : 1회
- 회보발간 : 2회(전·후반기)
- 총동창회장상 : 51기 졸업시
- 배지제작 : 500개
- 3사 체전 지원 : 대표선수 격려행사
- 각 기지 방문 : 4개 기지
- 운영담당 기생 간담회 : 5회
- 조문 : 會員 별세시 조화 및 방문
- 불우 會員 돕기 : 연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생활이 어려운 會員 또는 장기입원 중인 會員 위문
- 운영비

#### 2. 운영자금 조성 계획(안)



	비 용	수 입	비 고
1	기별 분담금	15,800,000원	10차년도
2	찬 조	3,000,000원	계획목적
	10기 사관 찬조	35,000,000원	
3	이월운영금	1,850,000원	전 10기 사관 계획목표
	계	55,65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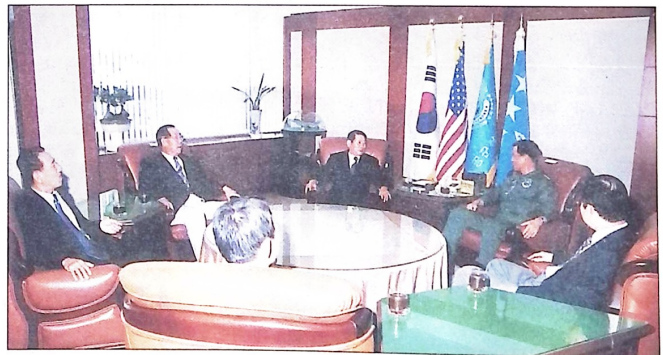
## 總同窓會 任員 空本禮訪

10차년도 총동창회 김홍래 회장과 임원 일행은 지난 7월 22일 취임 인사차 공군 본부 김대욱 참모총장을 방문 환담했다. 김회장 일행과 공군 참모총장은 공사총동창회의 활성화 및 발전 방안과 현역 및 예비역 會員간 친선 도모에 대해서도 진지한 토의와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본 회장단은 공사총동창회에 대한 공군의 성원에 감사를 표하였다.



## 總同窓會 會長團, 空軍作戰司令部 訪問

10차 공사총동창회 회장단(회장, 金鴻來) 일행은 '02. 7. 22. 공군작전사령부(사령관 : 중장 이한호)를 방문했다. 회장단은 조국 영공방위의 최일선 부대인 사령부의 현재의 작전 활동현황을 청취하고 사령부의 노고를 위로 격려했다. 한편 공사총동창회가 공군과 모교인 공사의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인 만큼 공군의 영공방위 임무에 함께 힘을 보태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고 동시에 군에서도 총동창회의 발전에 대한 끊임없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總同窓會 全 任員 母校 訪問



공사 총동창회 10차년도 운영을 담당할 10기 사관 전 임원(회장 김홍래)은 모교인 공군사관학교(교장 : 중장 박성국)를 방문했다.

(3면에 계속)

(2면에서 이음)

임원진은 박 교장으로부터 현 사관학교 운영현황과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변모한 모교의 실상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자리를 통해 임원진은 모교발전이 곧 공군발전이요, 더 나아가 우리나라 영공바위의 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절감하면서 앞으로 공사발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자고 다짐했다.

### 三士體典 出戰選手 激勵行事 開催

공사총동창회(회장 金鴻來)는 '02년 육·해·공 3사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운동선수 생도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필승의 밤" 행사를 8월 30일 공사회관에서 성대히 개최했다. 이 행사는 공사총동창회 임원, 각 기생 회장 및 총무, 공사·공분의 관련 지체관, 참모, 그리고 전 운동선수 생도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김홍래 총동창회장은 선수들에게 "경기에 나가 승리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fair play 정신이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 美, LA지역 空士總同窓會 消息

맨 처음 해외에 거주하는 동창회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美國 LA 지역에는 공사동창회 會員이 약 5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바 이들은 고국을 떠나 이국 땅에 살면서도 공사를 졸업한 자부심을 가지고 현지에서 선후배 공히 활발한 동창회 활동을 가지면서 상호 두터운 친선을 도모해 가고 있다. 해외에서의 동창회 활동은 비단 LA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타지역에도 소규모의 활동을 하고 있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도 이민간 동문들이 상호 친선을 교류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이곳 LA 지역에는 한국인 교포들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는 관계로 우리 공사동창회 會員들도 제일 많이 정착해 생활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會員들의 신분을 살펴보면 공사 1기로부터 10기까지의 會員이 40명 이상으로 전 회원의 80% 이상 인원을 점하고 있다. 즉, 연말한 원로 會員이 대부분이다. 현재 LA 지역 공사동창회 회장에는 최권복(공사 11기) 會員이 총무에는 심인태(공사 30기) 會員이 맡고 있으며 이들 회장단은 會員들의 친선도모와 고국소식, 모교, 모교소식을 교류하며 외국생활의 외로움을 달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LA지역 동창회에서는 현재 3개월마다 부부동반 정기모임을 갖고 있으며, 연말에는 동문 송년모임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 그 곳에 함께 거주하는 육·해군 사관학교 출신 동문들과 유대를 갖고, 현지 3군 사관학교 졸업생 동문모임도 수시로 가지면서 상호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이외에도 골프 운동 모임 등 취미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총동창회에서는 LA지역 동창회와 수시로 긴밀한 교류와 連絡을 취하고 있는바 최근에는 공사총동창회보와 2003년도 공사달력 수립부식을 송부해 줌으로써 그 곳 會員들에게 모교와 모교 소식을 전달해 준바 있다.



### 江陵飛行場 水害部隊 慰問激勵 訪問

'02년 여름, 우리나라 중·남부 지방에 쏟아진 집중폭우로 수십 년만에 찾아온 수해재난을 당한바 있다. 특히 강릉을 중심으로 한 영동지역의 수재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상황으로서 그 피해가 어느 지역보다도 컸었다. 강릉에 자리한 우리 공군기지도 그 피해의 예외 지역일 수가 없었고 항공기를 포함한 각종 장비, 건물, 기타 시설물들의 침수 및 파괴현상은 극심하기 짝이 없었다. 공사총동창회(회장 김홍래)에서는 이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은 모군의 일선비행부대를 멀리 보고만 있을 수만 없어 동창회 임원진 일행이 '02. 9. 6. 강릉 기지를 방문 소액이지만 수재의연금을 전달하고 용기를 가지고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위로 격려했다.

### 陸·海·空軍 士官學校 總同窓會長團 모임 開催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 모임이 육·해·공사교 교장을 초청한 가운데 '02. 10. 2. 서울 을지로 4가 한식당 "우래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모임은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사총동창회(육포회) 주최로 열렸는데, 이는 매년 이맘 때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친선모임인 것이다. 이 모임에서는 '02년도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 개최에 즈음하여 각 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fair play 정신으로 응원할 것을 다짐하고 궁극적으로는 육·해·공군의 상호협조와 발전에 기여할 것을 굳게 다짐했다. 금년도(2003년)의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단 모임의 주최는 공사총동창회가 맡게 되어 있다.

### 各 期生會 動靜

#### 1기(홍우회)

- 8월 14일 강화군청 문화원의 협조를 받아 강화 전등사, 의포리 해수욕장, 김포 조각공원 등을 견학하고 會員상호간 친목을 돈독히 했다.
- 9월 7일 국립묘지 현충관에서 개최된 김정렬 초대교장 추모행사에 참석하고 용산에 있는 "만추" 음식점에서 삼반기 결산보고 및 향후 동기회 행사계획을 협의했다.
- 10월 25일 기생회 정기모임으로 대둔산 국립공원관광 행사를 가졌다.
- 11월 14일 단양군청의 관광안내를 받아 단양8경과 유람선 관광 후 돌아왔다.
- 12월 11일 용산에 있는 "만추" 식당에서 1기생 송년회를 가졌다.

#### 2기(이공회)

- 2002년 10월 4일부로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하였으며, 회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회 장 : 고영근, 부회장(총무담당) : 김여형  
부회장(체육담당) : 변선기, 감 사 : 김판석
- 회장단은 2002년 10월 8일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내년도에 있을 임관 5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협조요청과 의견 교환을 하였다.
- 컴퓨터 동호회원 30명이 AFA2 E-mail Club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영수 동문이 이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다.

#### 3기(삼정회)

- 2002년 11월 21일 전쟁기념관에서 부부동반(70명) 참석하여 연말 기생총회를 개최하였다.

#### 4기(사봉회)

- 사봉회(四鵬會) 會員들은 건강유지 일환으로 환규복 산악회장을 중심으로 매일요일마다 등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우수 산행꾼을 선발해서 상품(등산시계)도 수여하고 있다.
- 2002년도에 철수를 맞은 會員[박용진(10. 6.), 장남춘(11. 10.), 오수근(11. 24.), 이영선(12. 5.), 조경래(12. 12.)]은 각각 교회 연을 가졌으며, 기생회에서는 이들의 건강장수를 빌어주었다.

#### 5기(신성회)

- 2002년 11월 11일 18:00 2002년도 후반기 운영위원회를 한남동 삼봉반점에서 가졌으며, 임관 50주년 기념행사와 會員친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 2002년도 신성회 정기총회를 12월 12일 하니 웨딩타운에서 갖고 운영계획과 신입회장단을 선출하였다.
- 신성회는 친목활동으로 등산, 바둑, 골프 및 낚시 모임을 각기 친목회장을 중심으로 계절에 구애 받지 않고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정기 모임으로는 등산 매월 2, 4주 화요일, 바둑 1, 3주 월요일, 골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낚시는 수시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3면에서 이음)

7기(칠성회)

- 칠성회 산악회원들은 11월 7일~9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설악산 등산모임을 가졌으며, 11월 12일~13일까지는 계룡산 일대를 돌아오는 연발 등산모임을 가졌다.

8기(팔진회)

- 팔진회에서는 '02년 10월 17일부터 2박 3일간 경주, 침송, 안동, 충주, 유성, 계룡산을 거쳐 호연지기 합양을 위한 단체 관광역행을 가졌다. 이 여행은 부부동반 29명이 참여하며, 가을의 아름다운 강산을 구경하면서 회원상호간의 깊은 우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 팔진회 정기총회가 12월 21일 양재동 거부식당에서 있었으며, 2002년도 결산보고와 임원 선출이 있었다.

9기(은하회)

- 2002년부터 은하회에서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등산의 날로 정하고 서울대공원 산림욕장, 관악산, 청계산, 분당 뒷산 등에서 총 4회의 등산모임을 갖고 건강을 다지고 있다. 또한, 취미활동으로 바둑모임을 두고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을 기우회 만남의 날로 정하여 분당에 있는 바둑 클럽에서 정기 모임을 갖는다.
- 회원 감사
  - 김명수 회원 : 창원 한일 단조회사 사장취임('02. 10. 1.)
  - 김창식 회원 : HIGH GAIN ANTONNA COMPANY 연구소장 취임

10기(십철회)

- 7월 1일부터 총동창회 운영을 맡은 이후 전 동기생이 합심하여 총동창회를 차질없이 이끌어 가고 있으며, 특히 총동창회 운영을 위한 전 동기생 찬조금도 목표액 100%를 달성하였다.
- 2002년 8월 20일 동기생 30명(부부동반)이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현황 정취와 하늘관 견학을 하는 등 하루를 유익하게 보내고 돌아왔다.
- 2002년 12월 12일 18:00 국방회관에서 송년회 모임을 가졌다.

11기(비성회)

- 매월 정기적으로 골프모임(회장 신보언)을 수원, 성남, 원주 체력단련장에서 갖고 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 산악회(회장 신기순)에서는 매월 첫째, 4째주 목요일에, 그리고 기우회(회장 이규형)에서는 매월 첫째, 3째주 수요일에 모임을 갖고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 이태식 회원이 9월 1일부터 하나로통신 시흥고객센터 사장으로 취임

13기(패공회)

- 9월 26일 용산웨딩타운에서 정기모임을 가졌으며, 병중에 고생하는 박갑순, 이병길 회원의 병문안과 돕는 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 12월 10일 서초동 삼정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2003년 패공회를 이끌어갈 회장단을 선출하였다.
- 회장 : 이강평, 총무 : 윤재명

14기(충조회)

- 매월 14일 월례모임을 통해 동기생 상호간의 친목과 동기애를 다지고 있다. 지난 11월 14일(목)에는 조선호텔에서 오찬 월례모임을 가졌으며, 향후 동호 회장(산우회장 : 한용길, 기우회장 : 박진재, 골프회장 : 최병식)을 중심으로 충조회 산하 동호회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아가고 있다.
- 이덕수 회원이 지난 8월 28일부터 대한석유공사 사장에 취임하였다.

15기(성익회)

- 매월 15일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정기적으로 점심모임을 갖고 있다. 골프를 하지 않는 동기생들도 함께 참석함으로써 많은 회원이 모이게 되어 동료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명정수(15기) 유한대학 학장이 15기 홈페이지(www.jsmyug.com)를 제작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홈페이지로 동기생 소식을 전하게 된다.
- 임용원 회원의 딸 성아 양(고교 2년)이 국가대표 골프선수로 지난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 2002년 12월 7일(토) 15:30 건설전문회관 백리향에서 전 동기생 부부동반 송년모임을 가졌다.

16기(승운회)

- 공사 비행교수로 제직 중이던 박영기, 강철수 회원이 6월 말 부로, 김중환 회원이 12월 말부로 정년퇴직하였다.
- 9월 29일 박성국 공사교장은 동기생 부부(59명)를 모교로 초청하여 골프운동과 문화재 관람, 그리고 만찬을 베풀어줌으로써 동기생간의 우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19기(태성회)

- 동기생 정기 모임을 매월 19일 19시에 순정환(19기) 회원이 운영하는 식당 "소공동 특매기"에서 갖고 있다.
- 7월 말로 전역한 동기생을 위한 골프모임을 7월 20일 수원 체력단련장에서 가졌다. 대령 전역자 14명 전원을 포함 총 4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즐거운 친선골프운동을 실시했다. 특히 사장으로 정성진 회원이 17번 홀에서 HOLE IN ONE을 함으로써 이날 운동의 즐거움을 배가시킨바 있다.

24기(웅비회)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근무하는 24기 조종사 32명은 민경식, 백영남 기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지역 동기생모임을 갖고 우의를 돈독히 하고 있다. 지난 10월 모임에서는 32명 전원이 총동창회 평생회비를 납부하는 등 총동창회에 대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轉役者 現況

(2002년 7월~12월)

기수	계급	성명	특기	전역월	기수	계급	성명	특기	전역월
20	준장	이영희	조종	7월	20	대령	정재택	시설	7월
20	준장	장성문	조종	7월	39	소령	나익진	인사행정	7월
20	준장	안병길	조종	7월	36	소령	윤진	조종	7월
20	준장	정철호	조종	7월	27	대령	최영순	조종	8월
19	대령	이종관	조종	7월	36	소령	최종혁	조종	8월
19	대령	이계오	교육	7월	42	대위	엄지용	항공통제	8월
19	대령	하서태	무기정비	7월	31	중령	한홍식	시설	9월
19	대령	이규찬	교육	7월	36	소령	김병타	정보	9월
19	대령	윤영원	무기정비	7월	20	대령	이재원	관리	10월
19	대령	조용희	정보통신	7월	23	중령	신차현	조종	11월
19	대령	신영덕	조종	7월	45	대위	이형섭	항공통제	11월
19	대령	김인영	조종	7월	20	준장	김성두	시설	12월
19	대령	이달호	조종	7월	20	준장	임근배	정보통신	12월
19	대령	손영수	조종	7월	20	대령	문대인	항공통제	12월
19	대령	김성용	정보	7월	24	중령	이남진	정훈	12월
19	대령	전재구	정보통신	7월	30	중령	허유만	조종	12월
19	대령	김의중	항공통제	7월	34	소령	최주만	조종	12월
19	대령	안동원	무기정비	7월	36	소령	박영원	무기정비	12월

희혼(華婚)

(2002년 7월~12월)

조	장	심(1기)	딸	인숙,	8월 17일
이	영	수(2기)	딸	장남	11월 9일
공	사	안(3기)	딸	장남	11월 23일
한	영	섭(5기)	아들	기흥,	11월 8일
신	덕	식(7기)	장남	장남	10월 6일
김	덕	영(8기)	장남	형주,	9월 29일
신	정	우(8기)	딸	여울,	8월 8일
(고)	희	호(8기)	아들	인환,	10월 12일
이	상	진(8기)	아들	형규,	11월 1일
한	광	희(9기)	장남	지석,	8월 10일
권	현	달(9기)	장남	순홍,	10월 10일
신	병	화(11기)	장녀	해규,	11월 29일
하	길	수(11기)	차남	성훈,	12월 14일
김	부	웅(11기)	장남	김윤,	9월 14일
박	중	걸(15기)	딸	희선,	7월 19일
김	신	홍(16기)	장녀	현수,	12월 21일
지	효	창(16기)	딸	지영,	9월 29일
지	양	일(16기)	딸	은설,	11월 30일
최	명	삼(16기)	딸	예정,	6월 29일
최	양	웅(16기)	장남	행민,	10월 5일
유	정	중(17기)	장녀	경환,	8월 10일
이	전	성(19기)	장남	윤석,	9월 8일
전	이	준(19기)	장남	정정,	10월 12일
이	종	관(19기)	장남	호준,	10월 12일
이	강	욱(19기)	장남	형재,	11월 2일

부음(訃音)

(2002년 7월~12월)

배	종	영(1기)	별	세	10월 9일
박	일	규(2기)	별	세	7월 6일
김	영	식(2기)	별	세	11월 25일
허	돈	구(3기)	별	세	9월 23일
이	준	수(5기)	별	세	8월 6일
김	문	찬(5기)	별	세	9월 11일
박	양	우(7기)	별	세	9월 1일
김	영	준(8기)	별	세	6월 14일
유	창	근(8기)	별	세	7월 17일
이	병	태(10기)	별	세	8월 21일
곽	갑	순(13기)	별	세	11월 23일
우	의	인(14기)	별	세	7월 25일

住 所 變 更

(2002年 7월 ~ 12월)

기수	성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	윤승철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1580 대화마을 한라아파트 205-1701	411-802	
2	김진억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7 관테온리전시 810호	463-811	031-726-1275
2	오세일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62번지 삼성래미안아파트 103-702	138-170	
2	이영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83 현대노블리스 104-202	463-809	031-713-5713
2	정병철	서울시 중랑구 묵동 20번지 신대 대림아파트 510-101	131-140	
2	정진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38 셋빌마을 우방아파트 309-502	463-750	
2	최용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동신아파트 303-1103	463-060	
3	고병수	서울 양천구 신정2동 목동 현대아파트 101-207	158-705	653-5532
3	김동호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457 만현마을 아이파크 1004-1701호	449-130	031-265-0680
3	김삼용	경기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98 강산마을 우성아파트 1907-502	411-370	
3	김영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뽕송아파트 1-505	135-280	02-568-2632
3	김인기	서울 서초구 방배 3동 989-2 현대빌라 1001호	137-063	
3	박석현	경기 파주시 김산동 성원아파트 104-601호	413-702	031-919-2329
3	엄용식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858-1 한솔노블빌리지 106-102	449-845	
3	이원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217-1402	463-773	
3	이필원	경기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1117 덕스(아파트)108-901	472-908	031-521-5296
3	이학수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71번지 반도보라빌리지 106-903	437-802	031-346-8772
3	이현동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21 하안마을 삼익빌라 106-105	463-810	031-716-9289
3	정규혁	서울 광진구 자양 2동 642 자양 5차현대아파트 501-203	143-869	457-0741
3	정우진	서울시 도봉구 창동 45 삼성아파트 101-302	132-041	906-9160
3	최동호	경기도 의왕시 내손1동 771번지 반도보라빌리지 109-402	437-802	031-426-2496
3	하상윤	경기 시흥시 정왕동 1788-1 건영5차아파트 508-501	429-861	031-507-3735
4	오수근	서울 관악구 봉천6동 봉천우성아파트 102-505	151-656	02-889-0818
5	김재명	경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삼성아파트 101-303	441-400	
5	여태현	서울동작구 신대방2동 706 보라매우성아파트 1-701	151-831	846-2697
5	이부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금호(아파트) 301-1804	463-020	031-714-5501
5	임학용	경기 용인시 풍덕천동 극동 임파크 304-1502	449-170	309-4955
5	전윤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7 관테온리전시 2619	463-811	031-785-7018
5	정봉수	경기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동일하이빌2차아파트 211-201	449-915	
5	허광선	경기 용인시 구성읍 동일하이빌 2차 205-1202	449-910	031-309-5296
6	강용수	경기 고양 일산구 마두 1동 백마삼성아파트 113-202	411-708	
6	박갑록	경기 수원시 장안구 화서동 꽃매양지마을 현대(아)132-304	440-150	011-334-0757
6	이상경	서울 동작구 사당 2동 산17 극동아파트 108-1202	156-092	
6	이선국	경기 고양 일산구 일산2동 1651번지 신들마을아파트 203-1703	411-312	
6	정용후	경기 용인시 구성읍 언남리 486 동일하이빌 1차아파트 111-1702	449-915	031-285-6220
7	김성서	서울 강북구 수유동 553-61 극동아파트 1-1003	142-070	02-997-9380
7	박만엽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21 주몽마을 대림아파트 1022-1101	435-640	031-341-3616
7	최인철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41번지 뉴타운아파트 14-702	431-823	
9	민대석	경기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621 운정마을 쌍용 2차아파트101-503	449-912	031-287-4854
9	박해욱	서울시 중구 중림동 200번지 삼성사이버빌리지 104-403	100-360	
9	신도범	서울 강서구 가양동 대림경동아파트 103-603	157-200	02-668-5267
10	김시호	서울 금천구 시흥2동 266-3 벽산아파트 512-1204	153-764	6335-7295
10	서진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중흥마을 금동아파트 604-1201	420-020	
10	송중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초원마을 LG아파트 505-904	431-070	
10	이봉종	경기 안산시 본오동 879-16 신안아파트 201-303	425-180	011-343-1948
10	홍동식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82-2 대림아파트 105-1202	430-705	031-474-8558
11	김원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번지 우성아파트 213-2002	463-773	
11	김관수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하신리 254-81	314-923	041-857-6889
11	신보인	서울 동작구 사당2동 금동아파트 106-401	156-092	
11	이승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LC3차아파트 308-1205	449-140	031-272-8131
12	고광덕	경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1번지 베스트타운 742-801	440-330	
12	김영용	서울 강서구 방화동 200번지	157-220	02-661-4475
12	남승진	서울 서초구 반포동 761 반포아파트 55-305	137-030	

기수	성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2	배양일	경기 용인시 상현동 851 현대 성우아파트 233-1401	449-130	
12	서호선	경기 고양 일산구 마두동 강촌마을 라이프아파트 521-801	411-350	
12	이부용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리 600 등문아파트 130-102	449-170	
12	이상경	경기 고양 일산 일산3동 후곡마을 동아코오아파트 1608-1001	411-737	
13	이준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903-1302	158-070	653-9399
13	최종덕	서울 금천구 시흥2동 266-3 벽산아파트 515-1605	153-032	894-9206
15	김석호	경기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121번지 큰마을 현대아파트 116-203	411-753	031-916-9466
15	문광웅	서울 강서구 가양2동 1474번지 대림경동아파트 105-106	157-751	
15	안위공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현대아파트 419-1203	463-777	
15	오상현	경기 용인시 상현동 성원아파트 306-204	449-843	031-276-6242
15	최광성	경기 용인시 상현동 만현마을 두산 위브아파트 804-1501	449-130	031-272-3166
15	최용환	경기 군포시 산본동 1145-14호 을지(아파트) 621-2303	435-040	
16	강무송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리 만현마을 쌍용아파트 705-1601	449-130	031-264-4246
16	최명성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402번지 강촌아파트 103-302	140-727	
17	강희진	경기 광주시 오포면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아파트 204-303	464-885	031-726-2177
17	송대성	서울 서초구 방배동 760-1 삼호아파트 11-1004	137-060	535-0153
17	이규희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58-14 월드빌 401호	138-050	
17	강상용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백마마을 벽산아파트 607-903	411-350	031-904-3267
17	장호근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897-2 삼환아파트 107-503	150-782	848-7335
17	조규식	경기 용인시 성북동 726 성동마을 LG빌리지 305-1203	449-140	
17	차우환	경기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1499 LG빌리지 102-1404	411-802	031-918-1096
18	곽조희	서울 송파구 풍납동 신성노바빌아파트 101-1504	138-040	
18	오환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한전아파트 107-1208	150-752	
18	정윤태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주공아파트 510-201	472-811	031-841-1153
18	김의중	경기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700 서그네마을 SK아파트 105-303	449-906	031-304-2542
19	김진진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7 녹원한신아파트 102-102	137-907	
19	손영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6차아파트 1003-1105	360-070	
19	신영덕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6차아파트 1003-1003	360-070	
19	윤영원	경기 의왕시 내손1동 774 반도보라빌리지 205-1702	437-081	031-342-4876
19	이규찬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707 현대아파트 105-1805	156-787	
19	이달호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부영6차아파트 1004-1203	360-070	043-297-6790
20	민병걸	서울 강동구 길동 산1번지 삼익파크 505-905	134-010	
20	이영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번지 시범아파트 15-92	150-894	782-3999
20	장성문	경기 용인 구성읍 언남리 하마비마을 동부센트레빌 104-1302	449-915	
20	정철호	서울 성북구 종암동 sky아파트 102-905	136-090	02-941-6182
20	최수길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샘마을 쌍용아파트 205-1505	431-080	
21	김광진	경기 광명시 철산동 주공아파트 1314-306	423-737	
21	김중철	서울 구로구 구1동 주공아파트 104-1507	152-051	851-3160
21	김장욱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삼익아파트 102-505	361-240	
21	박순재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삼환아파트 109-1202	150-057	738-7776
21	홍중백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432-5 영남아파트 114-1205	407-320	032-546-5749
22	홍재근	서울 서초구 잠원동 71번지 오레라하우스 601호	137-909	02-532-9217
24	이원중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4동 1126-9	411-314	031-924-1813
24	이철순	서울 양천구 목동 929 한신아파트 111-407	158-056	
24	전남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편1동 551-24번지	442-819	
24	정동조	서울 구로구 개봉2동 480번지 현대홈타운 203-101	152-092	6738-8856
25	양대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711 보라매파크빌 아파트 104-603	156-010	02-833-1012
26	장래환	서울 강서구 방화동 620-175 공향오피스텔 804	157-220	
27	정동철	경기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청구아파트 104-502	415-810	031-987-8066
29	니홍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61-2 한라그린오피스텔 310호	137-070	02-584-6274
30	이치원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삼환아파트 111-102	157-220	02-664-3020
32	김용진	경기 고양 일산구 일산동 후곡마을 1608-1003	411-310	
34	박석수	경기 김포시 사우동 풍년마을 현대아파트 106-1305	415-740	

# 母 · 軍 · 消 · 息

## 공군, '02년도 후반기 지휘관 회의 개최

- 군의 엄정한 군기강 확립과 철저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등 논의
-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공군인 육성 결의

공군은 지난 11. 13.(수) 공군 본부 대회의실에서 김대욱(金大郁, 58세) 참모총장 주재로 공군 본부 참모 및 각급 단위 부대 전 지휘관이 참석한 가운데, '02년도 후반기 공군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 최근 잇따른 각 군의 사고와 관련한 엄정한 군기강 확립 ▲ 연말 대선과 관련한 군의 정치적 중립 ▲ 비행사고 방지대책 마련 ▲ 철저한 군사 대비태세 확립 ▲ 동계작전 및 월동 준비태세 유지책을 집중 논의하였다.

또한 회의 후에는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공군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공군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할 것"을 결의했다.

김대욱 참모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엄정한 군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충실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군상을 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길 것을 강조하고, "대선, 정권교체 완료시까지 어느 때보다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중실한 동계작전 계획 이행을 통해 완벽한 공중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 공군, 항공우주 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 개최

공군은 지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실에서 "21세기 항공우주 정책과 과학기술"이라는 주제로 「제11회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및 무기체계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연인원 1,000여 명의 국내·외 항공우주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공군 발전, 항공우주 무기체계의 2개 분과로 나뉘어 열린 발표와 토론을 벌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국내외의 항공우주관련 업체와 연구기관들이 참가하여 첨단 항공우주 무기체계를 전시했다.

항공우주 무기체계 세미나에서 정영근 교수(한국항공대학교)는 「21세기 우주무기체계 구축과 공군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논문발표를 통해 21세기의 전쟁 양상은 정보전, 정밀타격

전, 사이버전으로 불리는 하이테크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미래 전쟁에서는 군사력의 질적 수준이 더욱 중요시될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은 우주전에 대비하는 항공우주 무기체계의 인프라 구축의 추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공우주 무기체계 전시회는 3일만에 걸쳐 63빌딩 1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되었는데, 국내외 15개의 무기체계관련 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이 참석하여 38개의 부스에서 항공기 모형 및 엔진, 위성 및 로켓, 정찰체계, 통신체계, 항공기 탑재장비, KT-1 관련 개발품 등을 전시하여 첨단 항공우주 무기체계의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본 전시회에서는 소형



무인항공기 실물을 비롯하여 국내에서 개발된 지대공/지대지 미사일 '신공'을 비롯해 합대함 미사일, 인공위성 추적기 등이

전시되어 21세기 무기체계의 발전상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 대한민국 최초 女 전투기 조종사 탄생

대한민국 역사상 첫 여성 전투기 조종사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바로 지난 '97년 금녀의 벽을 깨고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국민들의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 최초의 女 전투기 조종사의 꿈을 키워온 3명의 공군사관학교 49기 女 조종사들이다.

김대욱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9. 26.(목) 제16전투비행단에서 '02-2차 고등비행 교육수료식을 주관, ○○명(여조종사 5명 포함)의 조종사들에게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 마후라를 목에 걸어주었다.

이날 빨간마후라를 목에 건 5명의 女 조종사 중 편보라 중위 등 3명은 전투기 조종사로서, 나머지 2명은 수송기 조종사로

서 앞으로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고등비행교육을 수료한 女 조종사들은 지난 '01년 1월 T-41로 실시되는 초등비행교육에 돌입, 중등비행교육을 거쳐 '02년 2월 마지막 단계인 고등비행훈련에 입학하여 T-38과 T-59로 7개월여의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료함으로써,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는 영광을 안게 된 것이다.

3명의 女 전투기 조종사는 F-5 A/B 전투능력배양 (Combat Readiness Training) 과정을 수료 후 전투비행대대에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2년간의 전투비행임무 수행능력에 따라 고성능기(F-16 및 F-4 전투기)로의 탑승 가능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 미 공군성 장관 작사 방문

이한호(李漢鎬) 공군작전사령관은 11월 25일(월), 사령부 청사에서 제임스 로우치(James G.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한 것이며,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인 윌리엄



Roche, 64세) 미 공군성 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군사교류 및 우호증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미 공군성은 국방부의 육·해·공군성 중 하나로 공군의 운영과 인사정책 등을 관리하는 미 공군의 최고기관이다. 금번 접견은 서부 태평양 공군기지를 순찰 일정의 일환으로 오산기지의 7공군사령부 순찰과 함께 공고한 한·미 연합 방위

베거트(William J. Begert, 대장) 장군도 함께 동행했다. 이날,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한 미 공군성 장관과 미 태평양 사령관 일행은 작전사령관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눈 후 청사를 견학했다. 한편, 미 공군성 장관은 공작사 대회의실에서 이역수 前 공군참모총장의 미 공로훈장 서훈식도 함께 가졌다.

### Air Power Day 행사 盛了

매년 9월 중에 실시해 오고 있는 Air Power Day 행사를 이번에도 작사와 미 7공군사령부가 주관해서 실시했다. 작전사령부와 미 7공군사령부는 지역주민을 위해 오산기지가방행사와 블랙이글 에어쇼, 한국전 참전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에어쇼에서 미 공군의 A-10은 시범비행에 이어 지상에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무장잠착 능력을 선보였다. 특히 블랙이글은 아슬아슬한 공중 묘기를 선보이며 우리 공군의 우수성을

과시, 이날 행사에 참가한 주한 미군·가족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환호성을 자아냈다. 또한, 평택농악대·한국 공군의장대·미 공군 태평양 밴드·미8군 밴드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펼쳐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한편 이날 에어쇼에 앞서 오산 공군기지에서는 잠지랑 전 공군참모총장과 미 공군 딘 헤스 예비역 대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전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려 참석자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기도 했다.



### 한국문화홍보관 행사 계획

공군작전사령부는 8. 22.(목)~23.(금) 오산기지에서 이곳에 근무하거나 한국을 처음 방문하

기차기'의 체험과 함께 직접 사물놀이의 악기를 만져보는 행사도 동시에 실시되었으며, 후대전



는 미군장병과 가족들에게 한국의 참모습을 소개하는 '한국문화홍보관'을 운영하게 되었다. 문화관광부 '한국방문의 해 기획단' 후원으로 실시된 이번 한국문화 소개행사에서는 홍보관내 도우미들과 '초롱이', '색동이' 마스코트로부터 한국 소개책자와 각종 기념품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이날 행사장에는 우리 고유의 전통놀이인 '투호'와 '제

화를 이용한 통역서비스인 BBB 카드 소개와 함께 카드가 배포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월드컵의 감동이 생생히 남아 있는 월드컵 대형 사진 30여 점이 전시되었으며,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으며, '00년부터 시작해 올해 세번째인 이번 행사를 위하여 한국방문의 해 기획단 도영심(都英心, 54세) 위원장이 직접 방문하여 홍보행사를 펼쳤다.

### 憲政會員 작사 방문

공군작전사령부는 11월 19일(화), "대한민국 헌정회" 김용호(82세, 7·8·9·10대 국회의원) 부회장을 비롯한 헌정회원 18명을 대상으로 부대 견학행사를 가졌다. 헌정회는 전·현직 국회의원 2,200여 명으로 구성되어 대의제도 및 민주 헌정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로서, 금번 방문은 안보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공군의 대비태세를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이날, 헌정회원들은 공작사

현황 소개에 이어 24시간 영공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MCRC(중암방공통제소)와 항공 작전을 총괄 지휘하는 H-TACC(전구항공통제본부)을 견학했다. 견학 시간 동안 헌정회원들은 한·미 연합작전 태세와 적침투시 대응능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는 등 공군의 대비태세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편, 공군작전사령부 견학을 마친 헌정회원들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일선 부대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 會 費 및 贊 助 金

## 期別分擔金(10차년도)

## 三士體典 贊助金(各 期生別)

2002년 12월말 현재

단위 : 만원

기 수	7차년도 ('99. 7. 1. ~ '00. 6. 30.)	8차년도 ('00. 7. 1. ~ '01. 6. 30.)	9차년도 ('01. 7. 1. ~ '02. 6. 30.)	10차년도 ('02. 7. 1. ~ '03. 6. 30.)					
	계				회	남	부	미	남
1	완	완	완	면	제				
2	완	완	완	40		40			
3	완	완	완	40		40			
4	완	완	완	40		40			
5	완	완	완	40		40			
6	완	완	완	40		40			
7	완	완	완	40		40			
8	완	완	완	40		40			
9	완	완	완	40		40			
10	완	완	완	60		60			
11	완	완	완	60		60			
12	완	완	완	60		60			
13	완	완	완	60		60			
14	완	완	완	60		60			
15	완	완	완	60		60			
16	완	완	완	60		60			
17	완	완	완	60		60			
18	완	완	완	60		60			
19	완	완	완	60		60			
20	60	미	완	60				60	
21	60	미	완	60				60	
22	60	미	완	60		60			
23	완	완	완	60				60	
24	60	미	60	미	60			60	
25	완	완	60	미	60		60		
26	완	완	완	60				60	
27		완	완	60		60			
28		완	완	60				60	
29			완	60				60	
30				60		60			
계				1,580		1,160		420	

기 수	금 액	비 고	기 수	금 액	비 고
2	100	이공회	26	150	아람회
3	100	삼정회	27	100	석로회
4	50	사봉회	28	150	애채회
5	50	신성회	29	150	취조회
6	100	일성회	30	100	창로회
7	50	철성회	31	100	한물회
8	100	팔진회	32	150	백공회
9	100	은하회	33	250	비료회
10	100	십철회	34	200	한울회
11	100	비성회	35	100	창람회
12	100	은성회	36	100	한열회
13	100	패공회	37	100	한나래
14	100	충조회	38	300	청송회
15	100	성익회	39	100	까치늘
15	100	최용환	40	50	해밀회
16	100	승운회	41	100	해루회
17	150	봉우회	42	100	푸루매
18	100	흑매회	43	150	다솜회
19	100	태성회	44		
20	100	청익회	45	200	
21	100	여명회	46	100	
22	100	쌍매회	47		
23	100	총매회	48	100	
24	200	응비회	49	100	한음회
25	100	취운회	50	200	

## 贊 助 金

1. 10기사관 찬조

단위 : 만원

성명	금액	성명	금액	성명	금액
회 장 김홍래	800	이 사 김운주	200	이 사 이봉중	50
부회장 송중호	200	" 김제달	100	" 이수갑	50
" 이달화	500	" 김종선	100	" 이수길	100
" 한정복	300	" 김관용	100	" 이은봉	100
감 사 이헌재	100	" 문성근	30	" 이재병	100
" 임승욱	100	" 백대선	30	" 장영철	30
사무총장 김태석	100	" 백승용	100	" 장종길	30
이 사 권영락	100	" 서진규	50	" 전제순	30
" 김광영	50	" 신종재	30	" 최원철	50
" 김병태	100	" 손동현	30	" 최정석	30
" 김순호	100	" 송창수	30	" 풍동식	50
" 김시호	100	" 이강주	50	" 홍성부	50
" 김윤제	50	" 이근성	100	"	

2. 일반찬조

성명	금액
공군참모총장(대장 김대욱)	200만원
강민수(9기)	10만원
김삼태(9기)	100만원
박용태(5기)	10만원
이재철(9기)	10만원

3. 연말 특별 격려금

성명	금액
공군참모총장(대장 김대욱)	100만원
김삼태(2기, 보라매회장)	100만원

## 회비납부안내

- **會員회비** : 기본회비(평생회비)
  - 10만원(1회 납입으로 종료)
  - \* 미납자에게는 평생회비 지로용지 발송
- **기별분담금** : 9차 정기총회 의결
  - 회기(2002. 7. 1. ~ 2003. 6. 30.)
  - 2기~9기 : 40만원
  - 10기~30기 : 60만원
- **은행계좌**
  - 평생회비 : 지로용지 사용
  - 혹은, 우리은행 319-239049-01-001 (예금주 : 공사총동창회)
  - 기별분담금 : 우리은행 319-120738-02-101 (예금주 : 사무총장 김태석)
- **연락처** (총동창회)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358-1 공사총동창회
  - 우편번호 : 156-808
  - E-mail : airfa04@hanmir.com
  - 전화 : (02)823-1091
  - Fax : (02)823-1092



平生會費 納付者 現況

2002. 12. 20. 현재

기수	현재인원	납부인원	%	납 부 자 명 단
1	36	36	100	완납
2	80	80	100	완납
3	87	57	65.5	고승만, 고재원, 공사연, 김경복, 김규홍, 김동호, 김병기, 김삼용, 김상협, 김성하, 김인기, 김종훈, 김진섭, 김진환, 김필원, 박석영, 박영호, 박우식, 이상복, 이상운, 이원재, 이현영, 이종락, 이필원, 이학수, 이현동, 이영복, 임용식, 윤경환, 윤백옥, 윤봉섭, 정규혁, 정진섭, 정암채, 정홍식, 조박연, 조봉연, 조소하, 지경근, 최동호, 최환기, 홍천희, * 김시연, 김시우
4	65	48	73.8	구자춘, 김석용, 김용주, 김재운, 김관중, 박병순, 박승준, 박예재, 박오과, 박용진, 박재진, 박전하, 박차식, 배강희, 서극수, 서동렬, 신동만, 안우일, 양승문, 유나영, 유동천, 이태석, 이순요, 이시우, 이조한, 임병열, 장남준, 장무익, 정구연, 정낙영, 정복규, 정봉연, 정영봉, 정진모, 정현국, 조경래, 조봉구, 조욱찬, 최병기, 최세천, 최준식, 한영규, 홍재학, 왕규복, * 박상조
5	102	69	67.6	강원신, 고경달, 권오인, 김득만, 김상근, 김상락, 김선근, 김성일, 김옥범, 김윤배, 김종인, 김희년, 김홍규, 나병순, 문창수, 박병구, 박석환, 박정환, 박영직, 박용태, 박종희, 박종식, 박환배, 배경태, 배수현, 성보경, 손경희, 손민희, 신봉림, 손정희, 송승근, 안석기, 양영칠, 여태원, 장철중, 윤춘현, 이동식, 이병치, 이수진, 이준모, 이원순, 이원철, 이재우, 이준수, 이창호, 이창호, 이종일, 임종배, 임파용, 장기연, 양재명, 정병주, 정봉수, 정순갑, 정재식, 차순도, 최찬정, 최홍선, 한정근, 한필순, 함태상, 허광선, 황교찬, * 김용정, 김재성, 성재양, 이진구, 이희욱, 한동훈
6	46	48	104	완납
7	58	62	107	완납
8	59	65	110	완납
9	43	46	106	완납
10	49	49	100	완납
11	48	52	108	완납
12	42	35	83.3	강영식, 김규림, 김문수, 김부수, 김영식, 김영웅, 김원인, 김태규, 나광수, 남동현, 민항식, 박덕희, 박상철, 박원규, 박창길, 박춘택, 배기춘, 배양일, 백광현, 신철용, 심재운, 안봉열, 우대석, 우정수, 이명환, 이상경, 이상순, 이종득, 이종양, 이종우, 전대우, 정민남, 정관중, 최대식, 홍종진
13	47	41	87.1	권희분, 강신애, 고명준, 광갑순, 김무신, 김양수, 김영부, 김종식, 김진삼, 김진석, 김준언, 문기철, 민항식, 손태규, 안병하, 안병철, 유근우, 유병각, 윤재명, 이광평, 이기현, 이병길, 이승대, 이승배, 이완구, 이정호, 이종대, 이종화, 이태규, 이희관, 장덕수, 정해성, 지창수, 조건환, 최길용, 최영덕, 최인일, 최종덕, 태종민, *
14	50	50	100	완납
15	42	42	100	완납
16	56	36	64.3	강철수, 김문기, 김성구, 김신홍, 김의림, 김정갑, 김정욱, 김종환, 김현석, 김희동, 박성국, 박경용, 박영기, 박영훈, 배정영, 배중정, 백동기, 서효창, 오창모, 이상열, 이선기, 이상우, 이수홍, 이재기, 임정민, 장진수, 전광남, 정해창, 추창성, 최동철, 최명상, 최양용, * 권병남, 양길수, 장정봉, 지양일
17	60	39	65	강희갑, 고영섭, 고홍우, 권혁중, 김문수, 김상재, 김석우, 김용수, 김운태, 김용수, 김익환, 김재수, 김종현, 김준수, 박용택, 배종환, 송대성, 송대성, 안광수, 조수연, 원철희, 유성준, 유현준, 윤병인, 이규대, 이문호, 이성물, 이동대, 이한호, 이철희, 전영배, 장상훈, 장호근, 조규식, 차욱환, 한영택, 황찬만, *
18	64	45	70.3	곽조휘, 강제팔, 고정훈, 구세환, 구정희, 권석우, 김두연, 김성진, 김준식, 김제수, 김재운, 김진철, 김태곤, 김현규, 나금복, 류효열, 박재철, 석현수, 선치수, 손인익, 송희전, 신명호, 신영호, 임이름, 임영모, 오병한, 오환근, 윤관중, 윤봉수, 이기택, 이봉길, 이선희, 이영준, 이정욱, 이진화, 이태섭, 이하진, 장영수, 장용주, 전영훈, 정원태, 최석상, 최태호, 천기광, 허 한
19	72	37	51.4	김덕실, 김명림, 김영철, 김정진, 김현진, 박 열, 서경수, 송영수, 손정환, 양홍진, 유병근, 유병권, 유승렬, 유정재, 이규신, 이경옥, 이계우, 이규찬, 이달호, 이상열, 이영관, 백철인, 편세열
20	94	29	31	강만수, 김동래, 김성일, 김오비, 김우식, 김정기, 문태일, 박 열, 손준영, 이정파, 이영원, 이영희, 이재원, 이종득, 이지훈, 장성문, 정재택, 조대연, 차종권, 최삼용, 한광성, 한길성, 한준수, 허원욱, 홍상열, * 김성두, 백재원, 정철호, 김삼교
21	97	28	28.9	강남식, 장희태, 권 근, 김기연, 금영수, 김상인, 김영배, 김영학, 김태국, 명철원, 민병용, 박경석, 박희영, 배민섭, 배창식, 심광준, 선봉환, 송동근, 윤희철, 이광영, 이광희, 이수남, 장성태, 정용운, 조오연, 한흥식, 홍종백, 황사홍, * 박천수
22	103	22	21.4	강수준, 강희찬, 김근기, 남백우, 민영기, 배효직, 배계근, 손준열, 송인선, 우영운, 윤성기, 윤여동, 이경관, 이영하, 이용익, 이준섭, 장현섭, 홍재근, 최병운, 최승열, * 정경순, 안종호
23	109	19	16.5	이문담, 김성호, 김수환, 김우규, 김영선, 박종철, 이계훈, 이영덕, 이은수, 윤재원, 윤차영, 장석원, 정경모, 정규덕, 정대주, 최진수, 하창호, * 조원건, 함경만
24	130	46	35.4	홍윤식, 김태열, 박준홍, 백윤호, 신진섭, 송기백, 안창수, 안민홍, 염경식, 이월중, 이영중, 이재강, 전남채, 정성화, 정필훈, 주신희, 주종수, 최종용, 허봉재, * 김철현, 고재봉, 권오석, 김광목, 김명익, 김신원, 김익경, 김재철, 나용근, 나재남, 노성래, 류종수, 민경식, 박진열, 백영남, 이기용, 이영재, 이용상, 이철순, 정남주, 정정조, 전두봉, 최재호, 최재희, 최홍진, 홍순화
25	124	24	19.4	고덕천, 구도권, 김국휘, 김진태, 김홍용, 김정렬, 류홍규, 박우성, 박준한, 손명환, 오창환, 윤양로, 윤용현, 이귀영, 이성재, 임우규, 임희락, 최미경, 최승규, * 김신철, 심재영, 이석찬, 장래환
26	123	12	9.8	김태영, 박인규, 변종돈, 송갑수, 심상철, 유지훈, 윤덕중, 최병환, 최지수, 허종순, * 배중영, 임상현
27	125	10	8	고덕규, 권오성, 김만호, 김홍상, 남은우, 박창권, 손태용, 최동환, 한병국, 홍성은, * 고용하
28	122	6	4.9	김정호, 김성환, 김성진, 김영관, 김영분, 김영철, 김원규, 김철생, 나종렬, 박성기, 백승욱, 송창석, 심동환, 심재광, 오승근, 오영봉, 오한두, 이규복, 이원식, 이원식, 이일수, 이장근, 정남범, 최상철, 최승철, 한복규, 홍상기, 홍승조, 홍재욱
29	141	30	21.3	오성표, 김원규, 김용환, 김진환, 장덕진, 정규호, 채종복, * 차주섭
30	152	8	5.3	김철승, 신재현, 조환기, * 강경한
31	166	4	2.4	
32	168	2	1.2	김현곤, 심부수
33	173	9	5.2	유준중, 이재홍, 정영철, 정희주, * 박수철, 위강복, 이경재, 이성우, 장경식 2
34	167	7	4.2	김수봉, 안상철, 정상길, 장찬영, * 송광현, 안선환, 양희중
35	252	3	1.2	김중은, 민태기, 서완석
36	256	4	1.6	김용문, 박종국, 박홍식, * 김성균
37	252	2	0.8	이재섭, * 최기범
38	233	0		
39	222	1	0.5	최성모
40	243	0		
41	242	1	0.4	김민호
42	277	0		
43	271	0		
44	211	4	1.9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45	211	0		
46	230	0		
47	201	0		
48	193	103	53.4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보근, 구필원,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법준, 김석준, 김석규, 김승현, 김승철, 김성호, 김시문,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식, 신정훈, 남택수, 문보근, 민병연, 박경준, 박정수, 유지훈, 윤덕중, 최병환, 최지수, 허종순, * 배중영, 임상현,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함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홍,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봉수, 이동훈, 이명선, 이명삼,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재원, 이종원, 이종훈, 이찬용, 이창준, 이태승, 이영주, 이호성, 이규복, 이원식, 이원식, 이일수, 이일수, 이장근, 정남범, 최상철, 최승철, 한복규, 홍상기, 홍승조, 홍재욱, 조현중, 채 석, 천영호, 최권식, 최규안, 최성호, 최성호,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49	199	0		
50	193	0		
합	6,786	1,311	19.3	

\*는 10차년도 납부자 : 82명(2002. 7. 1.~2002. 12. 20.)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설날 승차권 예매중

- 10F | 영남, 서남
- 9F | 사무실
- 8F | 7F | 6F | 의류상가
- 5F | 스포츠센터, 식당
- 4F | 혼수상가
- 3F | 음식점
- 2F | 혼수상가
- 1F | 대합실, 매표소
- B1 | 콜드매거진, 수입, 역물과  
원자력연구소, 식당과 주차장  
지하실



대표이사 백남근

매일 매일 창업  
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모시겠  
습니다.

- 전화안내 센터 운영
- 화장실의 호텔형 고급화
- 외국인 안내소 운영
- 흡연구역이 쾌적한 그린존 설치
- 하차장 휴게실 운영
- 전사원의 친절서비스 교육
- 혼수상가와 스포츠센터의 새 단장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식회사/고속버스안내 (02)535-4151/상가안내 (02)535-4160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발전을 기원합니다

## 공군회관 신축 T/K 공사현장



감리자 : 토팩 엔지니어링

시공사 :  두산건설(주)

# 회원기고란

## 총동창회를 말한다



김태석 (사무총장, 공사 10기)

- 사무총장을 맡은 지 반년(6개월), 많은 기간은 아니지만 시간 동안 총창회 사무를 총괄하면서 느껴왔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담아 모든 회원 특히 후배 회원들에게 전하러 합니다.

우리 공사총동창회의 회원 구성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현역회원과 군을 떠난 예비역 회원이 그것입니다. 현역,예비역 모두가 공사를 졸업한 동창회원이지만 현역은 제복의 신분으로 민간단체에 몸담아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실제 동창회는 예비역회원으로 운영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후배들에게서 총동창회에서는 무엇을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총동창회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각 회원들을 위해 가시적으로 한 일이 그리고 혜택을 준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합니다. 필자 본인도 동창회에 몸담기 전에는 이 같은 생각을 꼭 같이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서 회원이 던진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총동창회 회원이란 그 자체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에 들어갈 때 아무나 입교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선택된 사람만이 공사에 입교하게 되고 4년간의 생도생활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졸업의 영광을 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교문을 나온 자만이 동창회 회원자격을 갖게 되는바 이 어찌 영광스런 자격증이 아닙니까. 공사를 졸업했다는 것, 동창회 회원이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 회원들은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자부심과 긍지를 밑바탕에 두고 우리 총동창회는 전체 회원들의 상호친선을 도모함은 물론이요, 회원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역군들이 모인 「親睦 安保 集團」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역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군(공군)을 성원하고 후원하며 공군과 국민의 유대를 공고히 하는 가교적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하는 주요기능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군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만이 임무를 수행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군과 민의 신뢰구축에 가교역할을 우리 동창회가 주도적으로 맡아 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친선도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면, 총동창회는 모든 기생별 동기와 연대를 가지고 어느 동기와 또 다른 동기와와의 유대를 조정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각 기생회의 불우 회원돕기, 회원들의 취업알선, 해외동창회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그들에게 모군, 모교 소식을 전파해주는 일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또 전 동창 회원들의 권익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이번 군 연금법이 개정되어 연금수혜 會員이 상당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된 데는 총동창회가 재향군인회와 함께 연금법개정에 노력을 경주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총동창회에서는 모군(공군), 모교(공사) 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군으로 정립되어 육·해·공군이 국방 임무를 담당하고 있고 이 3군이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3사 체육대회는 3군이 각각 자군 육성과 장군의 면모를 쇄신하는데 있어 상징적인 경쟁 활동입니다. 여기에 우리 총동창회는 모교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전개하여 후배들을 위로 격려해 줌으로써 공군의 위상을 제고 시키는 데 전력하고 있습니다. 동창회가 이상과 같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창회가 현 시점에서 회원 각 개인에게 가시적이고 물질적인 代價가 분배될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하기란 꾀어놓은 실정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동창회의 연륜이 쌓이게 되어 충분한 기금이 적립된 후에는 독자적인 재원으로 회원복지 문제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모든 단

체나 조직의 운영에는 예산(재원) 없이는 그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총동창회가 과거 한때 정부의 방침에 따라 그 활동이 정지됐다가 다시 운영이 시작된 것은 불과 10여년, 그 연륜이 그리 오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짧은 기간에 기금 조성이 충분한 상태가 되지 못하여 운영재원의 총당 방안으로 매 기생별로 1년간씩 「운영 담당 기수제」를 도입, 실시 해온 것이 수년이 경과 했습니다. 이번 담당기수가 10기 사관으로 동창회 운영의 10차년도를 맞은 셈입니다. 이 같은 제도가 생긴 것은 매 1년간의 동창회 운영을 그 담당 운영기수 회원들이 찬조금 형태로 각출해서 동창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총동창회운영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총동창회의 10차년도를 담당한 10기사관도 전 10기 사관 회원들이 각각 찬조금을 분담해서 3,500여 만원을 모금액, 그 돈으로 동창회 운영과 사무실 운영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운영 경비를 이런 방식으로 조달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이 남부한 평생회비를 총회장단에서 임의로 써버리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회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남부해준 평생회비는 한푼도 운영비로 집행되거나 여타 경비로 지출되는 일이 없이 총동창회의 장래를 위해 전액 100%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적립된 총기금은 3억여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동창회가 현재로서는 일시에 거액의 재원 확보책이 없는 상태이고 보면 결국은 각 회원들의 평생회비가 모여져서 기금으로 조성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10여 억원의 재원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의 시간이 소요되리라 예상되고, 매 기생별 1년간씩 순차적인 동창회 「담당운영기수 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회원 여러분이 알아오면 합니다.

이와 같이 총동창회 운영예산 문제로 매년 「담당운영기수 제도」를 도입하여 동창회 살림을 꾸려가는 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운영금 확보란 면에서 보면 운영담당기수 회원들이 찬조금을 내주니 이는 더 없는 장점이며, 회장 및 사무총장, 이사 등 소위 회장단의 잦은 교

체로 총동창회 운영의 불연속성과 추진사업의 단절성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필자가 지난해 7월 사무총장의 임무를 맡은 이후 주어진 1년 동안 기금 확보, 적절에 나를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각 기생별 회장을 통한 독려활동, 회원 개인별로 평생회비에 대한 이해와 남부독려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꽤 많은 회원들이 평생회비 납부에 참여 해줘서 기금 확보에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사에서 조종사님도 일하고 있는 24기 동문 회원들 32명은 전원이 평생회비를 모아 보내주셨습니다. 참으로 고맙다는 말을 본년을 통해 전하고 싶습니다.

그 외 총동창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참여해 준 회원들 모두에게도 꼭 같은 고마움과 감사를 표합니다. 남은 반년 기간 동안에도 더 많은 기금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회원 여러분들도 기금조성에 더 많은 관심과 참여 있을 것을 기대해 봅니다. 훗날 기대수준의 상당한 기금이 확보되면 우리 총동창회도 독립적인 건물(사무실)확보는 물론, 회원 개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복지사업도 전개해 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동창회란 본래 情誼적인 집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투철한 계급의식, 엄정한 규율, 그리고 수직적인 사고와 상하 관계는 혼란한 인정보다는 경직된 집단 분위기를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또 동기화라는 것도 존재하지는 하나의 동배집단(Peergroup)으로서 우직한 생존경쟁, 즉 보직 및 진급경쟁을 하다보면 여기서도 혼란한 인정보다 동기생이란 우정은 멀어지기 십상입니다. 이런 점은 굳이만 특수 집단에서 배제할 수 없는 하나의 속성이고, 동시에 공사총동창회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 몸담고 있을 때의 수직적인 사고와 경쟁의식을 훌훌 털어 버린다면 우리 공사인들이 훨씬 더 끈끈한 동창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전 회원들이 몸치고, 합심하여 끈끈한 친선도모는 물론 제2의 국가공방위비 집단으로 훌륭한 소임을 다해 나갈 것을 전회원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최규순 (공사 1기 회장)

## 1기 사관과 金浦벌의 追憶

군사학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사관학교가 처음 문을 연 것은 경기도 김포에서 보살 것 없는 시설과 여건에서 출발했다.

공사 1기 사관은 1949년 6월 10일 김포 비행장 옆 지금의 방화동에 있었던 육군 군사시설의 육군 항공사관학교에 97명이 입

교함으로써 사관학교 교육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육군 항공사관학교는 해방 직후 미군이 주둔했던 부대의 부지를 보수하여 만든 학교 본부 콘크리트 건물 1동과 20여 채의 크고 작은 쉼터 건물들이 전부였다.

입교식 때 착용했던 교복이나

군화는 미군 군복이 지급되었는데, 옷에 몸을 맞추고 군화에 발을 맞추어서 대강 비슷한 것을 풀라서 입고 신었으며, 몇몇 생도는 재봉사에게 따로 부탁해서 수선하여 입고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인 1949년 10월 1일에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정식으로 분리독립되어 육군 항공사관학교는 공군사관학교로

(11면에서 이음)

명칭이 변경되었고 김포 별관에서 항공교육은 교육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다가 교육이 시작된 지 불과 1년 뒤인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동족상잔의 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 이른 새벽부터 북쪽에서부터 포 소리가 들려왔다.

당시의 교장은 최용덕 장군이었는데, 최용덕 장군은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 총통의 전용기 조종사를 역임한 중국 공군 소장 출신이면서, 임시정부의 광복군 총사령관까지 지냈던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일등공신이었던 분이였다.

전쟁이 터지자 바로 다음 날인 6월 26일에는 당시 한국군 중에서는 가장 실전 경험이 많은 최용덕 교장이 김포지구 경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관계로 서한호 부 교장이 교장직무대리로 지휘권을 승계 받았다.

6월 26일 당일 북한 전투기가 3차례나 날아 와서 여의도와 김포비행장을 공습하는 통에 그날의 일과는 연습이 아닌 실전상황에서의 공습 대피 훈련만 반

복되었고, 정규 교과로서의 교육활동은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6월 27일 본교 상공에서 최초로 우군기와 적기의 실제 공중전을 목격하게 되었다.

낮 12시경 적의 전투기 2대가 김포비행장에서 주한 외국인을 철수시키고 있는 우리측 수송기를 공격할 목적으로 김포상공에 나타났는데, 그 때 수송기를 엄호하기 위해 김포 상공에 대기 중이던 미 극동 공군소속 F-82와 적기가 공중전을 벌인 것이다. 2대의 야그기를 격추시켜 상황이 종료되는가 하였는데, 낙하산으로 탈출 지상에 내려온 북한군 조종사가 갑자기 본교 쪽으로 권총을 발사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본교에서 99식 소총으로 응사해 사살하기는 하였으나, 우리 생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전투 경험이 되었다. 그 날 저녁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갑자기 수평까지 야간 행군 훈련명령이 하달되어 다른 생도들과 함께 비를 맞으며 김포에서 수원까지 야간행군을 하게 되었다.

비가 와서 날씨가 그리 덥지도 않고 밤이라 행군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그 날

생도들에게는 발표를 안 했지만 그 날 밤의 행군은 그저 단순한 훈련 명령이 아니었고 사실은 전군 후퇴 명령으로, 급방 돌아올 줄 알았던 이 행군은 끝을 알 수 없었다.

그날밤, 새 작업복, 새 군화는 물론이고 비상급과 시계까지도 고스란히 내무반에 놓아 둔 채 낡은 작업복에다 낡은 군화만 걸치고 행군 훈련차 김포를 떠났던 우리 생도들, 그 때 모포 1장과 항공 양식 2통을 지급받은 것이 김포 별관의 마지막 추억이 될 줄이야...

그 이후 대구와 진해를 돌아 잠시 서울로, 그리고 또다시 제주도 모슬포를 거쳐 진해로 이동해야 하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었다.

생도들에게 작전상 후퇴이든 뭐든 후퇴를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 당시의 대대장 전명섭 중위가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운한 마음으로 남아있다.

그 때 내가 대대장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나중에 공군부대의 지휘관이 된 후에도 나름대로 정답을 찾아 보려 애를 썼지만 아직도 그 상황에서의 모범 답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1기생과 김포 별관에서의 추억은 이와 같이 해묵은 숙제를 남긴 채 동료들의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오늘날 공군사관학교가 "세계로, 우주로"에서의 발돋움하고 있을 만큼 성장한 것도 알고 보면 1기생이 겪었던 전란 속의 애환과 쓰라림이 밑거름 되었다고 생각한다.

공군사관학교가 김포에서 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전란 중 대구로 진해로 서울로 제주도 모슬포로, 그리고 또다시 진해 교사로 수차례 옮겨 다녀야 했던 것은 1기 사관의 애환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 당시에는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고회를 넘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젊은 날의 고귀한 추억으로 오래 간직하고 풀 뵈이다.

# 인간답게 살자



한국최초 여성 전투조종사 중위 편 보 라 (공사 49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다. "어디보자. 아까제가 남자였으면 무관일텐데, 지금으로 말하면 군인 같은 거지. 근데 지금 직업이 뭐지? 회사에 다니냐?" "군인인데요. 공군조종사요..." "...그럼...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당황스러움을 위로하고 - 나중에는 많은 힘이 되주셨지만 - 철딱서니 하나 없던 내가 사관학교를 들어가게 된 것이다. 내가 거들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던 많은 경험을 했고 다른 동기들과 마찬가지로 비행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조국영공 방어의 임무를 담당하는 전투 조종사가 되었다. "나는 왜 이 길에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휘.깡." 친한 친구 녀석이 요즘엔 왜 이렇게 이 가사가 끌리는지 모르겠다며 불러주던 노래다.

어떻게 보면 이십대 중반의 나이인 우리 또래들이 갖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당연한 고민을 담고 있는 것 같다. 그 노래를 들으며 나도 새삼 같은 생각을 해본다. 처음 사관학교에 들어 왔던 나는 군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상태였다.

군인이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몰랐고, 더군다나 조종사가 되는 길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다. 갑자기 원서를 내던 때와 마찬가지로 어느샌가 나는 조종사가 되기 위한 비행훈련을 받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물결에 휩쓸렸다고 하는 편이 맞겠다. 내가 비행을 할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 낙관적이지 않았고 입교시 물질을 때문에 재검을 받았었다. - 그 생활에 자신도 없었다.

그 때문인지 비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생각 없이 마냥 흘러가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비행훈련을 받게 되었고, 조금씩 변하는 내 생활태도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는 뭔가 확실한 결심을 해야 했다.

그런 고민은 곧 조종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나의 생활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람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취미가 곧 직업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아직 나는 그런 사랑을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말이다. 군인, 직업군인. 그 중에서 전투조종사, 군사훈련하는 것이 취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전투기동이 취미도 아닙니다. '취미=직업'이 그렇게 드문 일이라면 나는 새로 나에게 그 주어진 일을 즐기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물론 그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게다. 만족하고 즐기기로 했다고 해서 그것이 뜻한 바 대로 될지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일에 대한 애착과 긍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다른 직업을 찾고 떠돌아다닐 터이다.

다행히 나는 조금 늦었지만,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다른 진로를 선택했고, 애착을 갖고 보람을 느끼게 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를 통해서 생활방식 전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뚜렷한 내 인생의 목표를 설계하고 이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쩌면 나는 축복받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인젠가 내가 많이 힘들어하던 때 나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던 어느 조종사분의 생활신조는 '인간답게 살자'였다.

대단히 인상 깊게 새겨들었던 그 말을, 혹자는 그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얘기라며 그 허상에 대해 꼬집었다. 누가 맞다고는 할 수 없다. 두

사람의 가치관이나 경험이 너무나 상이한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답게 살자'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이상적인 얘기라고 한 분 - 바로 내 어머니 - 의 적극적이고 완발한 성격에는 그저 인간답게 살자고 하는 것이 답답하고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조종사로서 생사의 갈림을 많이 경험했을 그 분은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실만 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에 도 불구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이다.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양고 물어보면 정답은 없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그 자체가 가진 철학적인 의미 이외에 현실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것이다.

비행생활을 하면서 많은 위업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도 하고 그것을 위한 각오도 되어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초월한 것처럼 답답하게만 살고 싶지는 않다. 나를 느끼고, 인간관계에서의 사랑을 느끼고, 일에 쓰는 나의 열정을 느끼며 또 세상을 느끼고 싶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항상 받는 질문이 있다. "왜 군인이 되셨나요? 전투조종사가 된 계기는? 앞으로 꿈은?" 등등이 그것들이다. 처음이라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을 느끼는 때가 그럴 때다. 다른 남자 동기들과는 별반 다를 바 없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두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마저도 다른 동기들과는 다른 그 '최초의 여성...'이라는 말 덕분일테니 말이다.

처음 그것에 대한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되었을 때는 정말 이상했다. 나의 의도와는 매우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담스러워만

(13면에 계속)

(12면에서 이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자체가 인생에 있어서 뜻밖에도 얻게 된 또 다른 큰 의미이기 때문이다. 또

그렇게 조금씩 깨닫고 느껴가는 것이 내가 크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말이다.

이 글을 쓰고 나서, 아직 살아온 날이 얼마 되지 않다가 혹은 아는 것이 너무 없었다며 나중에 어리석은 글을 쓴 것을 후

회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언제나 나를 지켜봐 주고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과 나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 글을 보여주며,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물 다섯째 해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이다.

오늘도 바라본다. 인간답게 살기를.....

<LA에서 온 편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精神



김진화 (LA거주, 공사 371)

“우리는 피 끓는 배달의 아들, 높고 빛나는 한해님 정신이여 받아서 누리에 떨치고자 하늘로 솟나니, 우리들 영혼의 기지 영군사관학교 하늘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 나는 이 교가를 사랑한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마음속에서 이 교가를 간직하고 부르면서 살아왔다. 그 중에서도 나는 “영혼의 기지”를 “영원의 기지”로 고쳐 부르기도 하고 “하늘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를 “미국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 미국에 살면서 조국에 이바지하자”라고 고쳐 부르면서 미국생활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달래곤 했다.

나는 1971년 봄에 중령으로 예편하자 바로 그 다음해 1월 말은 가족을 거느리고 미국 이민 길을 떠나게 됐다.

물론 직장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았고 수중에 돈도 몇 푼 없었으나 LA에 도착한 그날부터 지금까지 큰 번고 없이 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워진다.

공군사관학교의 전통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이라고 듣고 배웠다. 이 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생존을 위한 싸움터에서는 독창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로 나는 받아 들였다.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던 말인가?”하고 체념해 버리는 대신 우리는 아무런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에 도전하여 나아갈 길을 찾는 용기와 슬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이 독창력이야말로 어려운 이민생활에서 활로를 찾는 우리 공사 동문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된 옛날부터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다.

이를 보고 감탄치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현실세계를 눈을 감고도 마치 물위에 반사되는 영상처럼 세밀하게, 그리고 뚜렷하게 그려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또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과 자기 자신

의 몸과 마음을 지배 할 수 있는 정신력(정신을 통해 볼 수 있는 영상(image)이 지니는 능력)의 신비로움에 감탄해 왔다. 수천년 동안 우리 인간은 머리속에서 생생하게 그려 낼 수 있는 그 어떤 창조적인 것이라 할 지라도 이를 마술처럼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는 이 현상이 어떻게 재현되어지는가 하는 이치와 그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를 알지 못했고 이는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 신비로운 능력은 미신이나 사고 또는 우연의 일치로만 여겨져 왔다.

인간의 정신세계가 지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이해하려고 우리는 최신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우리 인간의 두뇌를 “모델”화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이며 신경외과 의사인 칼푸리부럽 박사(그는 브레인 리서치 분야의 아인슈타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홀로그램(입체 영상 : 레이저 광선과 마주치는 곳에서 발생하는 인터 패런스 패턴을 이용하여 재현되는 입체적인 영상을 공중에 투영(사)하게 되면 마치 실물처럼 보인다)이야말로 마치 실물을 통해서 또는 감각을 통해서 전달되는 인토매이션이 어떻게 우리의 두뇌로 접수되고 보존되며 다시 회수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지금까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지 못했던)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어떤 물체를 나타내는 입체적 홀로그램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것이 실물인지 아닌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우리 두뇌가 만들어내는 시각적 감각 영상은 모두 홀로그램 영상과 같다. 영상과 인상은 모두 물질로 만들어진 전기 자력의 힘(electromagnetic energy)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생생하게 남은 시각적 영상이나 감각적인 여러 가지 세부적 기억이 우리의 시각적 영상의 에너지와 파위를 더 강하게 해준다고 한다.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그려보는 영상이 있다면 그것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은 이처럼 시각적인 영상이나 감각적인 인상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

전자력의 충전을 지닌 시각적 영상은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을 상대방(인상을 받게 한)에게 끌리

게 하는 자력권(magnetic field)을 만들어 낸다. 이 끌리는 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독창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Neuropsychology of Achievement라고 하는 Self-improvement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겠지만 그 물질적인 요소에 못지않게 독창력과 실천하는 힘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힘은 불가능을 가능케 했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 냈다.

우리가 그 옛날 라이트형제가 경험했던 자전거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당시 형제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자전거 말고 또 무엇이였

을까?

우리는 두 형제가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며 언제나 한번 하늘을 날아볼까 하는 “열망”에서 비행기의 시초인 글라이더를 머리 속에 그려 보았을 것이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꿈을 이루게 해준 “힘”이 되었다고 본다.

물론 나는 미국에서 30년 동안을 살면서도 내놓을 만한 큰 일을 한적도 없고 따지고 보면 이런 글을 쓴다는 자체가 주제를 것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난 날에 미련을 두거나 후회를 한 적은 없다.

우리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세로 내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관학교에서 단련된 강인한 정신력과 독창력을 살린다면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우리의 여생도 뜻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공군사관학교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의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란다.

불고 있는 바람이라고

박웅진(공사 471)

눈을 감고 있으면 어디론가 가고 있는 바람 속에 바람의 일부가 되어 몸을 감출 수가 있었다.

지구인력의 힘으로 서 있고 싶어도 세찬 바람에 떠밀려가기도 하고 넘어지다가 일어나서다가 그 몇 번의 발버둥을 쳐왔던가,

헤아릴 수 없는 거리의 신호등이 점멸할 때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나는 불고 있는 바람이라고 외치기도 하였다,

희오리 바람으로 몸의 중심을 놓쳤을 때 뉘 무덤에 꽂힌 바람을 보고 은비백산한 빗줄기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다,

설부른 사랑과 같듯이 오늘을 사는 현실의 연금술에서 아름다운 삶과 죽음을 노래하는 것도 배웠다,

바람 속에 지나온 날들을 다시 검증하는 무게만큼 계량기의 눈금 속에도 바람이 불고 있었다,

# 母 · 校 · 消 · 息

## 공사 인터넷 원서접수 실시

공군사관학교는 정보화 시대에 요구에 부응하고 공군사관학교 지원자들에게 원서접수 과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원서접수 시간인 7. 1.(월)부터 3주간 사이버 공간을 통한 원서접수를 실시했다.

인터넷 원서접수는 직접 방문 및 우편발송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사용자 편의 중심 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해 지난 6월

한달간 시험운영 및 보완을 거쳐 실시하였으며,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afa.ac.kr)의 입학원서접수를 통해 원서를 작성한 후, 전형료 입금 후 수험번호를 부여받아 수험표와 사진대장을 직접 출력하여 사진대장과 무통장 입급증을 공사에 등기로 보내도록 했다.

을 소요, 완공한 하늘관은 생도 소양교육 및 휴식공간 등 다용도 개념의 생도전용시설로서, 총 건평 1,419평(4,692.79㎡),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스넥바와 기념품 판매소, 담구장, 음악감상실, 소극장 등 편의시설과 대면회장 등 생도전

용공간과 편의시설을 두루 갖춰 사관생도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필수 소양교육관은 독수리와 전투기 꼬리 날개를 형상화해 '항공우주 시대의 메카'를 형상화했다.

## 태국 공사생도 방문

공군사관학교는 9월 10일(화), 타놈스크 스티랑(Thanormsk Stirang) 생도 등 6명과 테라파트퐁통(Teerapat Plongtong, 37) 중령의 방문을 받았다. 금번 방문은 한·태국 군사교류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공군사관학교의 교육

과정과 생도 교육시설 및 제 212초중비행교육대대를 견학했다. 또한 태국 공사생도들은 일선비행단 견학과 용인 민속촌, 독립기념관, 법주사 등 한국문화 체험을 실시하였다.

## 공사 사관생도 필수 소양교육관(하늘관) 개관

공군사관학교는 기존 생도회관(하늘관)을 신설했다. 지난 1월 기능을 이전한 '필수 소양교육관' 부터 19개월에 걸쳐 총 53억원



### 국내 및 해외 자원개발을 선도하는 전문기업

www.kores.or.kr



박준택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제 25대 참모총장

대한광업진흥공사는 자원산업에 대한  
기술·정보 및 자금을 종합지원 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필요한 산업원료 광물과 에너지원료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토록 하고자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 탐사 및 개발,  
자원정보 제공 등 각종 자원개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공신력을 지닌 기관



대한 광업 진흥 공사  
Korea Resources Corporation



### 공사 첫 여성 전대장 생도 탄생

공군사관학교는 11월 9일(토), '97년 육·해·공군 여생도 입교 이래 최초로 전체 사관생도를 지휘하는 전대장(戰隊長) 생도로 박민경(朴珉暎, 21, 공사 51기) 생도를 임명하였다. 외국어에 유창하고 플루트 연주를 즐겨할 만큼 다방면에 우수한 자질을 갖춘 박민경 생도는 '99년 공사 입교

후에도 줄곧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였고, 특유의 활발한 성품으로 남·여 사관생도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아왔다. 박민경 생도는 21세기는 여성의 리더십을 필요로 하게 되는 만큼, 전대를 책임진 전대장 생도로 당당히 모두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 공사 212대대 14만 시간 무사고 비행안전 대기록 달성

초등비행교육을 담당한 공군사관 (화), 3훈련비행단 213비행교육대대 212비행교육대대는 12월 3일 대에 이어 공군사상 2번째, 세계



적으로 최초로 14만 시간 무사고 비행안전 대기록을 수립해 주목을 받았다. 금번 대기록 달성은 김운태 교수와 이동환 소위가 T-41 항공기로 계획된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활주로에 안착함으로써

달성되었으며, 지난 '81년 2월 10일부터 올해 3일까지 총 21년 10개월 동안 2,688만km(지구를 672바퀴 일주한 거리에 해당)의 거리를 무사고로 비행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 공사 제55기 사관생도 최종합격자 발표

공군사관학교는 12월 6일(금),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이끌 제55기 사관생도 000명(여자 20명 포함)을 선발, 발표했다.

금번 최종합격자 중 전체수석의 영광은 장훈석(張訓碩, 부산과학교, 17세) 군, 여자수석은 김민정(金旻正, 인천 명신여고, 18세) 양이 각각 차지했으며,

이 밖에 현동환(玄東煥, 18세) 군이 누나 현인선(玄仁善, 20세) 생도의 뒤를 이어 최초로 남매 사관생도의 영예를, 제10전투비행단장 윤재원(尹在沅, 공사 23기) 소장(진)의 차남인 윤석호(尹碩浩, 18세, 충남 한일고) 군이 공사에 입교하여 화제를 낳았다.

### 일본 방위대 사관생도 방문

공군사관학교는 8월 8일, 일본 방위대 요네야마 타카시(米山多佳志, Yoneyama Takashi) 육군 중령과 요츠 쿠니히코(湯瀬邦彦, Yuze Kunihiko) 공군 중령을 비롯한 장교 및 사관생도 등 12명의 방문을 받았다. 일본 방위대 사관생도들은 현재 교환생도로 와 있는 혼다 히로카즈 생도를

면담, 교육과정 적용 정도와 내무생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9일 오전부터는 생도대장 접견과 학교 현황 브리핑, 공군 박물관과 생도 내무실, 여성도회관 등을 견학하고 최근 신축된 하늘관과 이음속 풍동실험실 등 공군사관학교내 최신 교육시설을 직접 관람했다.

### 제2회 인성교육 심포지엄 개최

공군사관학교는 11월 15일(금), 지난 해에 이어 인성교육 심포지엄을 갖고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지도자 양성의 방향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 박성국 공군사관학교장의 개회사와 김성국 리더십 학회장의 축사로 진행

된 "제2회 인성교육 심포지엄"은 "글로벌 리더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방향"을 주제로 김병조 국방대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한 각계의 전문가들이 군에서의 인성계발과 여성역할 확대 등에 따른 인성교육 방향 등 다양한 주제로 열띤 토론을 가졌다.

### 공군사관학교장 美·日 양국 사관학교 방문

박성국 공군사관학교장은 11월 3일부터 10일간 美·日 사관학교를 순방하고 12일 귀국하였다. 순방기간 중 박성국 공군사관학교장은 미국 육·해·공군사관학교장과 美 공군우주사령부 작전부장, 일본 방위대 총장을 각각

만나 각 군 교육기관의 교육제도 및 현황과 양국 안보협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美 공사에 파견 중인 남은우 중령과 위탁교육생 정양운(53士), 김상원(51士), 일본 방위대 위탁 교육생 이대규(51士) 생도의 노고를 치하했다.

### 謹賀新年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한국석유공사 사장 이덕수 -

## 동해에서 산유국의 꿈이 실현됩니다

작어도 결코 지지 않은 나라 -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으로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던  
우리의 저력으로 드디어 울산 앞바다에서  
21세기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초일류 국가로의 성장을 위해  
한국석유공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석유공사  
Korea National Oil Corporation  
[www.knoc.co.kr](http://www.knoc.co.kr)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합니다

세상 어디로든,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 -  
아시아나가 그 꿈을 위해 새로운 만남을 준비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항공**

문의 및 예약 • 1588-6000 • flyasiana.com



**풍요로운 미래!  
한솔이 준비하며 이끌어갑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한솔, 세계인과 함께하며 끊임없는 연구와 탐구하는 자세로 앞서갑니다.  
또한, 내일의 주인이 될 후손들에게 준비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한솔은 항상 참 엔지니어링을 실천합니다.

시장 / 공학박사 / 기술사  
공군사후 70기 시설장

 (주)한솔 엔지니어링  
HanSul Engineering Consultants Co., Ltd.  
고속도로 국제공항, 특수교량, 지하철 종합 설계 · 감리회사  
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17-1(염지 B/D)  
TEL. 02)578-4904 / FAX. 02)578-4907

*7682*